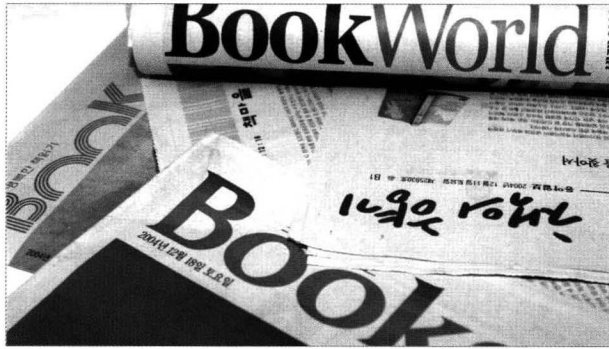


언론이 주목한 이달의 책들



## 21세기와 ‘바보신드롬’ 그리고 현대사의 내력 발견

《책으로 읽는 21세기》,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

《백년여관》, 《화전》

‘생명’과 ‘소통’, ‘팩션(faction)’에도 주목…《나의 생명이야기》에서 《하비로》와 《국자이야기》까지 \_\_\_\_\_

한 해가 바뀌기 한 달 전 주요 일간지들은 책의 의미를 빌어 21세기적 문명론의 열개를 제각기 유추했다. 55명의 필자들이 19개 학문 분야에 걸친 100여 권의 책을 설명한 《책으로 읽는 21세기》는 그 유력한 도구가 된 책이다.

일간지 서평란에선 “학문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주는 길잡이 책”(《한겨레》 12월 4일자)이라거나, “다양하게 부딪치는 개별 이론들 간의 차이와 그 이론들을 가로지르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꿰어볼 수 있는 참고서”(《경향》 12월 4일자)라는 등의 호평이 줄을 이었다.

같은 날짜(조선일보)에서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는 “최근 인문출판 경향이 눈높이를 낮춰 내용을 가볍고 쉽게 하는데 치중하는 것과 달리, 길잡이에 가까운 ‘가벼움’보다는 독자들에게 생소해도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집어넣는 ‘묵직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씨는 특히 이 책을 통해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보그, 여성, 젠더, 영혼 등 여러 주제를 살펴 보면서, 나머지 다른 주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며 “하나의 주제를 살피는 다양한 각도나 관점과 만

날 수 있고, 지적 유연성과 개방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서물로서의 가치를 매겼다.

12월 3일자(문화일보) 서평란은 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인용하며, ‘바보 온달이 과연 바보였을까’하고 궁금해했다. 그리고 ‘온달이 바보가 아니었을 것’이란 사람이 80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을 들어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귀족》의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했다. “온달의 행적이 일종의 비극적 영웅담으로 윤색돼 구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런 ‘윤색’을 ‘우리 사회의 바보신드롬’으로 치환했다. 곧 “입으로 정의를 외치며 뒤에서 온갖 편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꾀보 행동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머리 좋고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세칭 일류의 허울을 조롱하고 싶은 서민들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 바보 온달”이라고 뜻매김했다.

대부분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박태준 씨의 자전적 이야기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도 자상하게 소개했다. 이 책은 ‘박태준’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을 철강왕국으로 만들며 모든 경영인에게 살아 있는 교재 역할을 하는 ‘경제인’ 박태준, 그리고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각기 집권 과정에서 손잡고 싶어했던 정치인 박태준의 일대기”(《매일경제》 12월 9일자)란 점에서 신문마다 적지 않은 지면을 차지했다.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는 12월 16일자(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학출판시장이 죽은 이유는 독자가 책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가의 글쓰기가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 ‘구태의연’을 탈각하듯, 그는 장편 소설 《하비로》를 내놓으며 “20대 초반 게임세대를 위한 소설”을 표방했다.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도굴로 부를 축적한후 남긴 비밀지도 한 장 때문에 1930년대 상하이 암흑세력들이 뒤엉켜 대결한다’는 게 책의 줄거리. 이를 두고 같은 날짜(서울신문)은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이 손잡은 이른바 ‘팩션(faction)’ 소설”이라며 분방한 작가적 상상력에 따옴표를 둘러쳤다. 그러면서도 “상상의 성취는 크지만, 솔직히 문학적 순도면에선 옹색해지는 작품”이라고 토를 달았다.

무릇 ‘언론’이라면 시대의 정당성을 되묻는 술회나 기록에 대해 진지해야 하지 않을까. 12월 9일을 전후해 몇몇 일간지들은 임철우의 장편소설 《백년여관》에 대한 의미 있는 리뷰를 곁들

이고 있다. 《백년여관》은 여관을 드나든 인물들의 비극적 사연을 들추며 일제시대와 4·3사건, 6·25 보도연맹사건, 광주항쟁 등 우리 현대사를 관통한 내력과 비밀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9일자 <국민일보>는 “5·18을 소재로 한 ‘봄날’ 이 역사적 사실의 극단을 하나하나 짚어간 사실주의 기법의 소설이라면 이 소설은 신화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환상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신문은 특히 “아직도 6·25전쟁이나 5·18 광주항쟁이나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듣는데, 그것은 단지 ‘과거’ 로 정리하면 끝날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삶에 간여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에 글을 쓴다”는 작가의 말에 밑줄을 그었다.

12월 8일부터 4~5일간 거의 모든 신문들은 한 권의 책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황우석·최재천 교수의 글과 김병중 교수의 그림이 어우러진 《나의 생명 이야기》(효형출판)가 그것. 완간본이 배포되기 직전까지 출판사 나름대로 ‘엠바고’ 를 주문했던 이 책을 두고 언론은 “1953년생 동갑내기, 서울대 교수, 시골의 품속에서 자란 ‘촌놈’. 그리고 생명이란 화두”(11일자 <동아일보>)란 컷을 달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일간지들은 특히 <동아일보>의 서술처럼, “생명공학과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명윤리에 끼인 황 박사의 고민, 그리고 최 교수의 날렵하고 재치 넘치는 글에 담긴 동물과 생태계에 대한 애정”을 호기심 이상의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의 그림에 대해선 “글밭 사이로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원두막같다”며 노고를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황 교수와 최 교수의 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책의 내용이 크게 새롭지 않다”고 일말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00년간 유·무명 화가 28인의 이야기를 다룬 《화전》도 일간지 서평란을 크게 차지했다. 4일자 <한국일보>는 “민중미술 운동에 참여했던 저자가 주목하는 화가들은 예사롭지 않다”며 “가령 산수화나 사군자가 아니라 인물화에서 대가를 이룬 채용신(1850~1941)을 장승업과 비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이 책의 남다른 시각을 강조했다. 또 “‘전대미전前代未見의 작가’ 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주목 받기 시작한 홍세섭(1832~1884), 윤희순(1902~1947) 등 외면당한 작가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고 부연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다룬 책 가운데엔 마정미의 《광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를 빼놓을 수 없다. 11일자 <서울신문>은 책 가운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기계와 같이 증기

의 힘을 입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니…(중략) 광고도 기계와 같이 또한 범백 사업의 증기와 일체 라는 <독립신문>의 구절을 인용하며 그 의미를 살폈다. 신문은 “이미 그 시대부터 근대화 물결 앞에 당황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광고가 무엇인지 짚어내고 있었던 셈”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광고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유통되어 왔는지 꼼꼼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기성세대라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하고, 광고에 얽힌 뒷얘기는 젊은 세대도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12월 13일자 <경향신문>을 비롯, <문화>, <세계>, <동아>, <국민> 등 일간지는 조경란의 새 소설집 《국자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경향신문>은 책에 실린 8편의 소설에 대해 “각각의 독립성을 갖지만 ‘소통’ 과 ‘공존’ 이라는 희미한 끈으로 한데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의미를 매겼다. 서평자는 또 “그 소통의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 국가가 될 수도 있으며, 공존은 모든 생명체의 삶의 전제”라고 정색하며 책을 대했다. 한편으론 “편하고 쉽게 읽히는 소설보다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쓰기 위해, 한 개인이 가진 역사성과 사회성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 속에 결국 동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작가의 말로 창작의 진정성을 부각시켰다.

비슷한 시기 각 신문은 윌리엄 파운드스톤의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코멘트를 가했다. 11일자 <동아일보>는 ‘딜레마’ 의 개요를 친절하게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이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는 존재들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인 게임이론을 만든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1903~1957)의 전기이면서 게임이론이 냉전과 핵무기 경쟁에서 한 역할에 관한 사회사적 기록”이라고 책의 성격을 요약했다.

이달의 신문들은 또 《삼국지 바로읽기》, 마음산책의 《열명의 일본인, 한국에 빠지다》, 《유목과 은둔》, 《조용한 열정》, 《파리아의 미소》 등에도 주목했다. 이 밖에도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아틀라스세계사》, 《대륙의 찬란한 기억-100대 박물관을 가다》, 《유혹의 기술》, 《십대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공간》 등이 일간지 서평란에 오르내렸다. 출판저널 편집부